

일본 분리파건축회의 초기작품에 관한 연구

황보봉*

¹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Early Works of Japanese Secessionist Architects

A. B. Hwangbo^{1*}

¹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요약 본 논문은 유럽에서 근대건축의 헤게모니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던 1920년대 일본의 근대건축이 어떠한 성향을 지니면서 발전하게 되는지를 분리파건축회(Japanese Secessionist)의 건축이론과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분리파건축회는 1920년부터 1928년까지 9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활동한 전위예술가(Avant-garde) 단체이지만, 이들의 도전적이고 활발한 활동이 일본 근대건축의 전통성 논쟁을 비롯해 예술가의 지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근대건축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 논문은 분리파건축회가 창립하게 되는 배경과 더불어 일본 근대건축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반요소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의 급진적인 건축관을 당대 유럽 건축계의 흐름과 대비시켜 파악하고, 근대건축의 전반적인 맥락에서 분리파건축회가 지니는 건축적 경향과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Abstract In the early 1920s Japan, a new concept of architecture emerged abruptly. Comprised of six new college graduates, Japanese Secessionist Architects, so called Bunriha Kenchikukai, proclaimed that they reject any historical baggage that Japan had so far inherited, and decided to build a brand new way for modern Japanese architecture. Their modernism differed from eclectic measurement done by earlier generations. For them, contemporary modern Japanese architecture was only copious to historic monuments of Western civilization. Bunriha architects' statement not only advocates an escape from nationalist historicism and Westernization, but also intends to resolve the dilemma in that it substitutes a technical syncretism inherent in all avant-garde movements. This paper intends to elucidate that Japanese Secessionist architecture is greatly indebted to German Expressionist architecture in terms of its formal language and avant-garde utopian idealism.

Key Words : Japanese Secessionist, Modern Movement, Avant-garde Architectur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논문은 유럽에서 근대건축의 헤게모니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던 1920년대 일본의 근대건축이 어떤 성향을 지니면서 발전하게 되는지를 분리파건축회의 건축이론과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자 했다. 분리파건축회(分離派建築會, Japanese Secessionists)는 1920년에서 1928년까지 9년이라는 짧은 시간 존재한 전위예술가 단

체인지만, 이들의 활동이 일본근대건축의 전통성논쟁을 비롯해 예술가의 지위에 대한 논의 등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근대건축의 형성과정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룬 분리파건축회의 작품이 가지는 특징을 당대의 작품들과 비교하여 대조적으로 규정하는 데에 있다. 또한, 분리파건축회의 건축적 경향을 당대 유럽 근대건축계의 전반적인 흐름과 결부시킴으로써 그들의 활동이 세계적인 맥락에서도 평가될 수 있도록 의도했다.

이 연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일부)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Corresponding Author : A. B. Hwangbo (Seoul National Univ. of Science and Technology)

Tel: +82-2-970-6589 email: hwangbo@seoultech.ac.kr

Received April 4, 2014

Revised May 2, 2014

Accepted May 8, 2014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분리파건축회가 결성되는 1920년부터 해체되는 1928년까지의 기간을 연구기간으로 설정했으며, 총 7회의 전람회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리파건축회의 전람회는 전기와 후기로 구분될 수 있는데, 제1회에서 제3회까지의 전람회 도록은 자체적으로 출판했으며, 홍보와 판매는 제한적인 단계였다. 제4회 전람회 이후에는 분리파건축회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정기간행물 전문출판사에서 관람회의 정보를 게재했으며 독자층이 넓어지고 그 영향력도 확대되는 시기이다. 본 논문에서는 근대사회에 대한 열망과 과학기술의 건축적 구현의지가 가장 강열했던 초기의 전람회 3회분에 한정해서 논지를 전개했다. 작품은 전람회 제1회부터 제3회까지 제출되었던 분리파건축회 소속회원의 설계작품 모두를 대상으로 하되, 특히 국제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야마다 마모루와 신건축이론으로 주목받은 호리구치 스테미에 주목했으며, 같은 시기 발표된 독일 표현주의 건축가들의 작품 및 이론과의 연관성 및 균질성을 토대로 일본 분리파건축회의 성격과 작품경향을 규정하려고 시도했다.

2. 일본 분리파건축회의 등장

2.1 일본 분리파 건축회의 결성

1932년 뉴욕의 근대미술관에서 개최된 국제주의양식(International Style)전시회를 통해 코르뷔지에와 그로피우스를 중심으로 하는 건축관이 주류건축으로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각국에서 공고히 자리잡게 된다. 국제주의 건축의 개념은 이보다 앞서 1923년 W. 그로피우스가 기획한 전시회(Internationale Architekturausstellung)와 동명의 저서에서 비롯된다[1]. 뉴욕의 국제주의 양식 전시회의 도록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활동하던 많은 건축가들의 작품이 사진과 도면을 통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특이하게도 일본인 건축가의 작품도 한 점 포함되어 있다. 그 작품은 바로 동경전력의 연구소건물이었으며, 건축가는 분리파건축회의 창립회원인 야마다 마모루(山田守, 1894-1966)였다[2].

야마다는 1920년 일본 동경제국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하면서 개최한 졸업전시회를 통해 당시의 건축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아방가르드성격의 신건축을 제안

한다. 분리파건축회(分離派建築會)는 당시 야마다를 포함한 동경제국대학 건축학과 졸업생 6명이 발기한 전위 예술가단체를 지칭한다. 분리파건축회의 발기인은 다음과 같다[Fig. 1, Fig. 2]



[Fig. 1] Exhibition Catalogue Front Cover (1920)
Courtesy of Tokyo University Library

분리파건축회 창립회원 (Founding Members)

- Horiguchi, Sutemi (堀口捨己 1895-1984)
- Yamada, Mamoru (山田守, 1894-1966)
- Ishimoto, Kikuchi (石本喜久治, 1894-1963)
- Takizawa, Mayumi (瀧澤真弓, 1896-1983)
- Morita, Keiichi (森田慶一, 1895-1983)
- Yada, Shigeru (矢田茂, 1896-1958)

[Fig. 2] Members of Japanese Secessionists (1920)

이들은 당시 유럽에 유학하고 돌아 온 학교선배 고토우(後藤慶二) 그리고 이와모토(岩元祿) 등이 프랑스와 독일 등지에서 가지고 온 각종 건축관련 잡지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동경대학의 학생들이 영국과 독일의 각종 건축잡지를 접할 수 있게됨으로써 야마다를 비롯한 이들이 독일의 근대건축가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표현주의 성향의 건축가들에게 매력을 느끼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월간지 “건축잡지”는 1887년

부터 간행되고 있었으나 이 시기 이후 일본에서는 “신건축”(1925)과 “국제건축”(1925)을 비롯한 건축을 주제로 하는 전문잡지가 여럿 경쟁적으로 출간되게 된다. 미디어의 영향력이 전문가는 물론 일반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인식한 뒤의 행보로 이해된다.

분리파건축회의 창립의도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창립 이후 이들의 이상에 동조하여 새로이 가입한 이들도 있었다. 동경제국대학의 이토 추타(伊藤忠田)교수로부터 동양건축사 수업을 사사한 아마구치 분조(山口岡村)蚊象, 1902-1978)와 동경대학 건축학과 졸업생인 하마오카(濱岡(藏田)周忠, 1895-1966)는 1921년 신입회원으로 가입한 뒤, 제3회 분리파전람회부터 작품을 출품하게 된다. 아마구치는 또 다른 중요한 일본 아방가르드 건축가단체 창우사(創宇社) 설립에도 참가하고, 활발히 글과 디자인을 통해 전시회 활동에 나선다. 아마구치는 이후 독일로 유학해 발터 그로피우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등 일본 근대건축사의 중요한 인물로 남게 된다.

창우사는 그들의 첫 번째 선언문에도 나타나 있듯, 분리파건축회에 영향받아 출발하게 되지만, 사회적으로는 곧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입장에 놓이게 된다. 엘리트집단으로 인식된 분리파건축회와는 달리, 창우사 회원들의 사회적 위치에서 유추할 수 있듯, 이들의 작품활동을 통한 사회적 파급효과와 영향력은 제한적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진보적인 건축을 계속하기 위한 당시의 사회적 조건에도 한계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분리파건축회의 이상에 토대를 두고 있는 선언문과 구체적인 구별이 어려운 건축적 표현 역시 이들의 건축적 가치를 제2의 분리파건축회 혹은 아류 정도로 밖에 평가받지 못하게 했다. 건축적으로만 본다면, 창우사나 분리파건축회 모두 이상적인 근대건축을 추구하고 있었다.

2.2 일본 분리파 건축회의 선언문

분리파건축회의 선언문은 바우하우스 선언문이나 표현주의 건축가들의 강령에 빗대어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3]. 대단히 이상적이고 감성적인 모습이 돋보이는 이 선언문을 통하여 분리파 건축가들은 새로운 건축에 대한 실현보다는 과거와 현재의 분리를 통한 새로운 건축의 가능성과 노력의 경주에 방점을 두고 있다.

분리파 선언문 (Bunriha Manifes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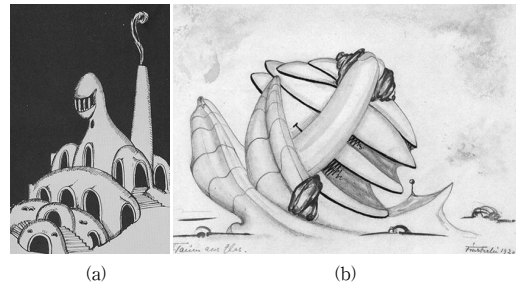
We arise! To create a realm of new architecture that has true meaning, we secede from the realm of past architecture.

We arise! In order to awaken all that lies dormant within the realm of past architecture and to rescue all that is in the process of drowning.

We arise! In our state of jubilation, we dedicate all our efforts to realizing this ideal, and we wait expectantly until we collapse, until we die. We declare the aforementioned in unison, facing the world.

[Fig. 3] Japanese Secessionists Manifesto (1920)
English Translation by K. Oshima (2009:39-40)

분리파 선언문은 유럽의 건축가들의 선언문과 비교해 볼 때 과거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신건축을 추구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그 언어의 기조(tone)와 성격은 서구의 정치적인 것과 구분되며, 반사회적이고 도전적인 성격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대조적인 사례로, 그로피우스의 바우하우스 선언문은 건축가와 화가, 조각가들의 연합을 요구하며, 계급의식과 갈등요소를 표현하고 있어 상당히 강렬한 느낌을 전달해준다[4].



[Fig. 4] Similitude of Bunriha and Glass Chain
(a) Crematorium by Y. Mamoru (1921)
(b) New House by H. Finsterlin (1920)

한편, 분리파선언문은 독일의 표현주의 건축가 브루노 타우트가 이끌었던 전위예술가 단체 그라스 체인 (Die Gläserne Kette)의 서간문집에서 느낄 수 있는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 분리파건축회 전시회에서 보여주는 작품들은 그라스 체인의 그것들과 실제로 매우 유사하다. 한 예로 그림4에 제시된 작품들은 탐미적이고 유기체적인 건축형태를 도발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분리파가 표현주의 건축의 직·간접적인 영향 아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3 분리파건축회의 국제적인 맥락

분리파건축회가 갖는 의미는 첫째로 일본최초로 등장한 근대건축가집단이라는 데 있다. 오스트리아 빈의 세cession 운동 (Secession)에 영향받아 그룹이름을 분리파라고 지은 이들은 유럽 근대운동의 아류가 아닌 그들 나름의 근대건축의 가능성을 추구하고자 했다. 야마다에 의하면, 그들이 의도한 것은 당시 일본건축계가 보여주던 절충적인 디자인성향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었으며, 같은 이유로 그들 이름을 영문 세cession으로 번역하지 말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5] 분리파의 첫 전시회는 창립회원 6명이 졸업하던 1920년, 동경대학 구내에서 이루어졌으며, 같은 해 7월에는 동경시내 니혼바시(日本橋) 근처의 시로키야(白木屋)백화점에서 공개전시회를 갖는다. 그리고 이들의 작품을 1권의 책으로 간행하기에 이르는데, 전시기획과 홍보 등의 과정은 서구건축계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Fig. 5] First Exhibition Poster (1920)
July 18-22, Shirokiya Department, Tokyo

3. 분리파건축회의 건축적 이상

3.1 분리파건축회의 전람회 개요

분리파건축회는 1920년부터 1928년까지 모두 9번에 걸쳐 도쿄(東京)과 교토(京都) 그리고 오사카(大阪)에서 전람회를 개최했다. 교토와 오사카의 전람회는 분리파간사이전(關西展)이라는 별칭을 사용했으며, 1923년의

제4회 분리파전시회는 간토대지진의 여파로 교토에서 이루어졌다. 이외에 분리파전람회는 모두 동경에서 이루어졌다. 마지막 전람회는 1928년에 개최되었으며, 1929년 야마다 마모루가 제2회 CIAM참가와 더불어 유럽및 미국건축시찰에 나서면서 더 이상 전람회는 유지되지 않았다[6].

분리파건축회 전람회 (List of Exhibitions)

- 1920.07 First Exhibition (Tokyo)
Publication of First Catalogue / Manifesto
- 1921.10 Second Exhibition (Tokyo)
Publication of Second Catalogue
- 1922.05 First Kansai Exhibition (Kyoto)
- 1923.06 Third Exhibition (Kyoto)
- 1924.06 Second Kansai Exhibition (Osaka)
- 1924.11 Fourth Exhibition (Tokyo)
Publication of Third Catalogue
- 1926.01 Fifth Exhibition (Tokyo)
- 1927.01 Sixth Exhibition (Tokyo)
- 1928.09 Seventh Exhibition (Toky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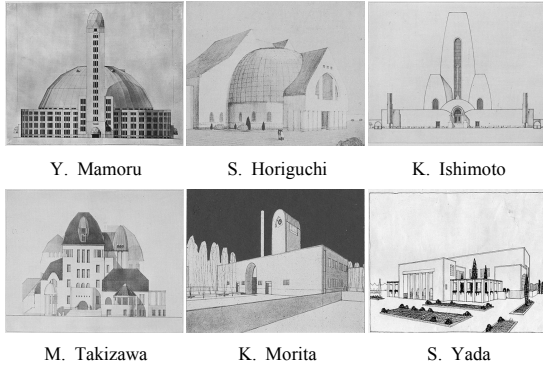
[Fig. 6] Japanese Secessionists Exhibitions List Data is drawn from Works of Y. Mamoru (2006)

모두 일곱 차례의 전람회에서 처음 세 번의 전람회는 자체적으로 도록을 기획했다. 이와나미서점(岩波書店)에서 단행본 형식으로 출간했으며, 이후 제4회 전람회부터는 잡지사 “건축신조”에서 출판을 담당해서 효과적으로 그들의 의지를 홍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구독층 또한 더욱 넓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7].

3.2 분리파건축회 건축가의 예술적 경향

분리파건축회가 처음 구성될 당시에는 야마다 마모루, 호리구치 스테미 그리고 이시모토 키쿠치 세 명에 의해 모임이 주도되었는데, 이들은 예술에 대한 열정이 깊고 스케치와 도면제작에 뛰어난 인물들이었다.[8] 이들은 분리파건축회의 이름이 유럽의 세cession(Seccession)과 연관되기를 원치 않아 영문명으로 일본어 발음 그대로 분리파(Bunriha)를 고집하는 등 스스로의 정체성을 만드는 데에도 공을 들인다. 이러한 태도는 사뭇 집단적인 동질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사실 분리파회원들 각각은 개성이 강한 이들이었다. 그들의 개별작품은 분리파회원들

이 추구하는 가치와 예술적 성향이 뚜렷이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의 작품 리스트는 1920년 제1회 분리와 건축회 전람회에 제출된 회원 6명의 작품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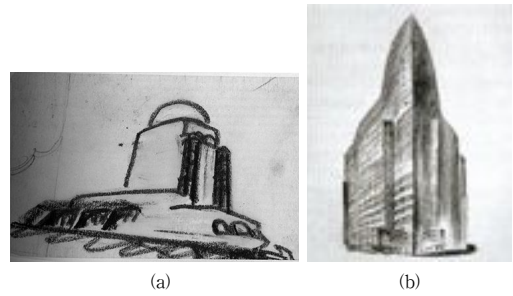


[Fig. 7] Works presented at the First Exhibition From the Exhibition Catalogue (1920)

위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건축형태의 경향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의 통일성과 균질성을 이루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창의성이 돋보인다. 실제 이들의 관심 사항 또한 제각각이어서 실제 작품들과 함께 게재된 논설의 주제도 건축적 감상에서부터 구조적인 제작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하지만, 건축전람회에 참가한 방문객들로 하여금 분리와건축회가 이러한 개별성에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일본 건축과는 다른 새로운 건축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는 데에는 충분한 통일성과 균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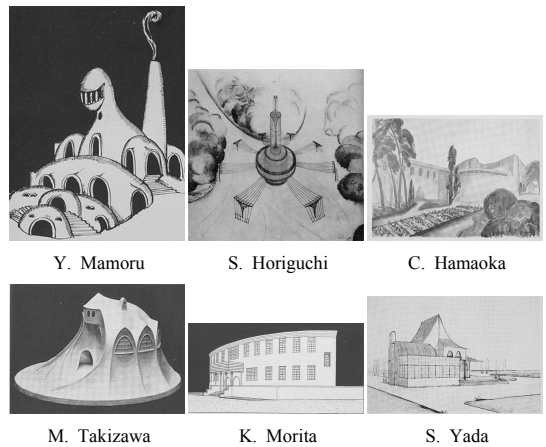
3.3 유럽 표현주의 건축과의 연관성

같은 시기 유럽의 건축계가 지녔던 다양한 실험적인 건축이 일본에 투영되고 있다는 점은 모든 작품에서 그 형태와 더불어 풍겨나오는 분위기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이시모토의 공회당과 야마다의 타워는 독일의 표현주의 건축가로 잘 알려진 에릭 멘델존(E. Mendelsohn)과 휴고 헤링(H. Haring)의 건축디자인과 시각적·기능적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Fig. 8] German Expressionist Qualities
(a) Einstein Tower by E. Mendelsohn (1919)
(b) Friedrichstrasse Office by H. Haring (1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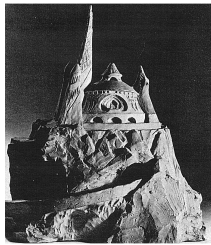
1921년 제2회 전람회에서는 하마오카/쿠라다 치카타 다(濱岡/藏田周忠, 1895-1955)가 새로이 참여하여 작품을 발표한다. 이 전람회 도록에는 제1회보다 더욱 도발적인 주제와 건축형태, 과감하고 노골적인 작품태도를 보여준다. 야마다와 호리구치 그리고 타키자와는 대담하고 노골적인 형태를 통해 급진적이고 대안적인 건축의 가능성을 실험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호리구치는 빛과 섬유의 탑을 발표하고 평화기념관 건립과 계몽의지를 피력했으며, 이듬해 우에노 공원에 세워진 평화기념탑은 올브리히가 설계한 쿤스트콜로니(Kunstcolonie)의 영향을 받게 된다.



[Fig. 9] Works presented at the Second Exhibition From the Exhibition Catalogue (1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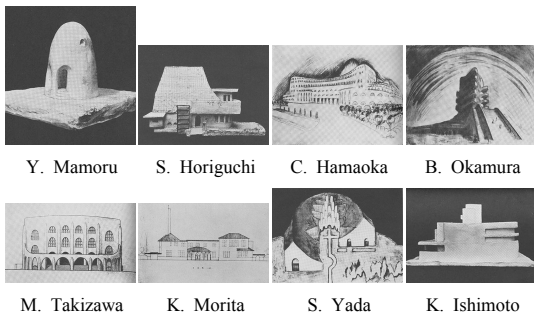
한편, 타키자와의 작품은 표현주의 건축가 허먼 오브리스트(Hermann Obriest, 1862-1927)의 작품에 영향받은 것으로 보이며, 야마다는 허먼 핀스텔린 (Hermann

Finsterlin, 1887-1973)의 유기체적 생명력을 건축에 불어넣는 실험에 동참하는 듯 하다[Fig. 4, Fig. 10].



[Fig. 10] Rock Monument by Hermann Obrist (1908)

1922년 제3회 건축전람회에서는 모두 8명의 회원이 참가해 작품을 발표했다. 아마다와 타키자와 그리고 오카무라는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형태를 통해 표현성이 강한 작품을 보여주고 있고, 호리구치는 일본민가에서 표현되는 지붕형태와 처마선을 근대건축의 구조와 합쳐 조화를 이루어 보려는 중요한 시도를 한다. 오카무라는 E. 멘델존의 아인슈타인 타워 스케치를 연상시키는 기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시모토는 제목에서 체제저항적인 성향이 드러난 작품을 제작했다.



Y. Mamoru S. Horiguchi C. Hamaoka B. Okamura
M. Takizawa K. Morita S. Yada K. Ishimoto

[Fig. 11] Works presented at the Third Exhibition
From the Exhibition Catalogue (1922)

3.4 분리파건축회의 이론적 성장

아돌프 루스(A. Loos, 1870-1933)의 영향을 받은 호리구치의 글 '장식에 대한 소고'(1921)는 분리파의 건축을 이해하는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분리파건축회의 두 번째 전람회의 카타로그에 실린 이 글에서 호리구치는 전통적인 형태를 근대건축에 적용하는 것을 이끼나 수초(水草)가 고인 물에 떠있는 것으로 비유했다. 하지만, 아돌프 루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호리구치 자신

역시 디자인에서 장식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물론 불가능한 일이었다[9]. 제3회 분리파 전시회에서 실험적으로 제시된 주택계획안은 이후 실제로 완공되어 일본건축사에 큰 획을 긋는 작품으로 남아 있다[Fig. 12]. 한편, 제3회 전람회에서 출품한 이시모토의 작품중에는 당시 시가지건축물법 제정에 항의하는 디자인이 있어 분리파건축회가 추구하던 개혁성향의 반체제적인 면이 두드러진다. 또한, 모리타는 건축구조의 특질과 건축에서의 위상에 대한 글을 기고하고, 오카무라는 건축의 본질을 사유하는 기고를 하는 등 개인의 가치관 또한 지속적으로 유지하려 시도했다[10].



[Fig. 12] Shienso House by S. Horiguchi (1926)

3.5 분리파건축회의 영향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리파건축가들은 과거와의 결별을 통해 신건축을 창조하자는 본래의 주장과 더불어, 과거의 형태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대한 편이었다. 그것이 이론의 전통적인 것이든 아니면 외국의 것이든 인류의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점에서는 논리적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당위성을 지닌 것이지만, 이태리의 미래파건축가들이 보여준 과격한 순수미래주의와 비교하거나 혹은 이들이 겨우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주목할 만한 점이다.

분리파건축회의 창립이 일본건축계에 미친 영향은 커서 분리파창립 이후 곧, 또 다른 아방가르드의 성격을 지닌 건축회 창우사(創宇社)의 창립을 가져오게 된다. 창우사 이외에도 그 이후 나타난 일본 근대건축의 일단의 그룹을 열거해보면 바로크 장식사(バラック裝飾社), 라토(ラト), 메테오루(メテオール), AS會, 마보(マヴォー),

인터내셔널 건축회 (インターナショナル建築會)등을 들 수 있는데, 모두 1920년대 초반에 나타난 것들로 분리파 건축회에 자극받아 등장한 현상들이다[11]. 후지모리(藤森, 1993)는 분리파건축회의 도전과 파급을 고려해 이들을 기점으로 한 일본근대건축의 시기구분을 시도하기도 한다[12].

4. 결 론

본 논문은 일본 근대건축의 형성과정에서 독보적인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분리파건축회의 초기작품을 당대 유럽건축의 특질과 결부시켜 이해하고, 근대건축의 전반적인 체제속에서 평가하려고 시도했다. 분리파건축회의 초기작품들은 당대 일본의 전통과 결별하고 새로운 근대사회의 건축을 도모했으며, 특히 유럽의 표현주의 건축가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리파건축회가 발표한 초기작품의 특성은 단지 유럽의 건축가들의 형태적인 유사성을 가지는데 그치지 않고 당대 건축가들이 지녔던 아방가르드적인 혁신과 이상주의를 공유하고 있다. 즉, 독일표현주의와 일본 분리파건축회는 상당한 동질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젊은 건축가들 스스로 설정한 시대적 소명을 실천하기 위해 택한 급진적이고 도발적인 작품성향은 일본의 근대건축을 창조하기 위한 일관된 실천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일본 분리파건축회의 작품은 일본 근대건축을 규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될 수 있으며, 세계사속의 그 위상 또한 재고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1] W. Gropius, International Architecture. 1923
 [2] H. R. Hitchcock and P. Johnson, International Style. New York, Norton, 1932, p. 221
 [3] Bunriha Manifesto, Bunriha Kenchikukai, 1920
 [4] W. Gropius, Bauhaus Manifesto. 1919
 [5] J. Reynolds, Maekawa Kunio and the Emergence of Japanese Modernist Architecture. Berkeley, CA, 2001, p. 21
 [6] Architectural Works of Yamada Mamoru, Tokyo, Tokai University Press, 2006, pp.172-173
 [7] K. Oshima, International Architecture in Interwar

Japan.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9, p.41

[8] S. Muramatsu, Zadankai, Bunriha-Tokyo Chou Denshinkyoku. 74: recitation from K. Oshima, op. cit., 2006, p. 42
 [9] A. Loos, Ornament is Crime.
 [10] K. Ishimoto, Bunriha Kenchikukai Exhibition Catalogue, Iwanami Shoten, Tokyo, 1922 (reproduced in 2009, p.241)
 [11] H. Suzuki, Nihonno Kindai 10: Toshie. Tokyo, Chuokoron, p.270
 [12] T. Fujimori, Nihonno Kindai Kenchiku. Tokyo, Iwanami, 1993, pp. 165-179

황 보 봉(A. B. Hwangbo)

[정회원]



- 1993년 2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공학석사)
- 2000년 5월 : 영국 셰필드대학교 건축학과 (건축학박사)
- 2001년 9월 ~ 2003년 6월 : 일본 동경대학 특별연구원
- 2003년 7월 ~ 현재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관심분야>

건축계획 및 설계, 건축역사 및 이론